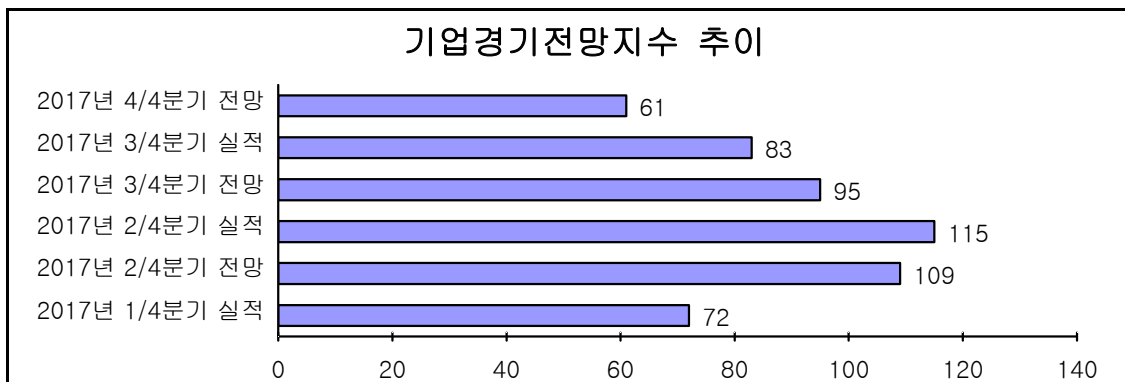
 영주상공회의소 調查結果	2017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회원조사과 054)632-8830	회원사 29개 표본업체 조사 결과

영주상공회의소(회장 송화선)는 최근 회원사(제조업체) 29개를 표본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017년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지난분기보다 '22' 포인트 하락한 '61' 를 기록했다. 실적추정치는 전 분기보다 '3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 한 것으로 0 ~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분별 기업경기전망지수 추이

	2017년 1/4분기 실적	2017년 2/4분기 전망	2017년 2/4분기 실적	2017년 3/4분기 전망	2017년 3/4분기 실적	2017년 4/4분기 전망
체감경기	48	106	111	88	86	70
매출액	58	106	126	96	84	62
설비투자	106	120	111	92	81	55
자금조달여건	75	103	111	104	82	62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7년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은 체감경기 70, 매출액은 62, 설비투자 55, 자금사정 62 로 대체적으로 4/4분기 전망은 3/4분기 전망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제조업 체감경기 전망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재 관내 수출기업들의 주요 무역 상대국은 ‘동남아’ (90%), ‘기타국가’ (33%), ‘미국’ (30%), ‘중국’ (20%) 순이며, 특히 중국이 무역 상대국인 수출기업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수출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역 상대국인 미국에 대해 한미 FTA 발효이후 5년간 미국으로의 수출환경변화에 대한 설문에는 ‘그대로다’ (66.7%), ‘더악화됐다’ (33.3%)순으로 대미(對美) 수출환경 변화는 변동없거나 더 악화된 것으로 답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 (55.2%), ‘불참하겠다’ (27.6%), ‘참여하겠다’ (17.2%) 순이었다.

영주상이는 “높아지는 수출장벽과 가계부채·내수부진 심화 등 대내외 불안 요인들 때문에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며 “정부·국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 제거와 소비심리 진작 등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조사기간 : 2017. 8. 28 ~ 9. 8 (휴일제외 10일 동안)
- 조사대상 : 영주지역 조사대상 표본업체
- 조사방법 : 전화, FAX
- BSI의 기준치는 100. 100 초과는 호전예상업체가 악화예상업체보다 많음을 의미. 100 미만일 때는 반대임
- BSI 지수=[(호전예상업체수-악화예상업체수)÷ 전체응답업체수] × 100 + 100
- BSI전망치는 다음분기에 대한 전망치임